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수사일보

정치일보

제 538 호 대표전화 (062) 373-6448 (음력 5월 12일)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화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간담회 개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발전과 도·농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발전과 도·농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체험·휴양마을 운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과 체험·휴양마을의 다양성을 통해 농촌에는 소득 증대를, 도시민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체험·휴양마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화순군수의 제안으로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에는 14개 체험·휴양마을에서 17명의 위원장 또는 사무장이 참여해 자유롭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각 마을의 향후 계획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화순군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구복규 군수는 "어떤 시설을 갖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체험·휴양마을 운영자들이 현재의 운영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영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군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약속했다.

참석한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자들 또한 "격식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앞으로 간담회가 정례화돼 체험·휴양마을 운영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희망했다.

/이문수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발전과 도·농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체험·휴양마을 운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순군 제공

광주시, 아트피크닉·예술의거리축제·남도달밤야시장 등 체험행사 풍성

무더운 여름에 낭만이 가득한 대인예술시장 '남도달밤야시장'을 방문하면 다양한 먹거리와 한평갤러리, 대인놀이터, 길위의 문화공연, 별별 상상정원 등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7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시즌1이 개최되며, 9~11월에는 시즌2~4를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함께 나들이하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주말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행사로 ▲아트피크닉 ▲예술의 거리 축제 ▲남도달밤야시장 ▲GMAP 사운드가든 ▲광주비엔날레 및 파빌리온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FC 홈경기 관람 등이 있다.

가족 단위의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플리마켓을 즐길 수 있는 '아트피크닉'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 전역에서 열린다. 회차마다 약 300명이 체험부스에 참여하고 800여 명의 참관객들이 모이는 등 가족 단위로 나들이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오는 7월 1일 중외공원에서 아트 스테이지, 상상놀이터, 아트캠프 등 연령대별 맞춤형 문화체험이 가능하다.

예술인과 시민이 다채로운 예술체험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궁동 예술의 거리 축제 '아트 궁동'은 7월 1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개최된다. 올해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재미있는 아트궁동'이라는 주제로 원데이클래스, 플리마켓, 야외공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무더운 여름에 낭만이 가득한 대인예술시장 '남도달밤야시장'을 방문하면 다양한 먹거리와 한평갤러리, 대인놀이터, 길위의 문화공연, 별별 상상정원 등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7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시즌1이 개최되며, 9~11월에는 시즌2~4를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야외 공연장에서는 7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기원 콘서트 '사운드 가든'이 펼쳐진다. 콘서트와 함께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외벽에 상영되는 미디어 파사드 '디지털 별자리'를 감상하며 화려한 야경을 즐길 수 있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실내 전시실에서는 증강현실 작품 '문준용:별을 좇는 그림자들'을 선보인다. 관객의 그림자와 작품이 상호교감해 실제 별을 따라 걷는 듯 동심에 빠져들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양림미술관, 이강하미술관 등에서 진행된 9개국 파빌리온 전시는 7월 9일 막을 내린다. 관객 친화적 도슨트 프로젝트 등 새로운 도전 덕분에 관람객이 20만명을 돌파했다.

7월 7~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제12회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가 열린다. 189개 공방의 271개 부스에서 지역 우수공예품부터 명장 작품, 공예품대전 입상작까지 다양한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 공예품 구매, 체험부스 참여도 가능하다.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다. 6월 열린 스온스 프린지는 스트리트 댄스 경연 방식으로 펼쳐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광장을 관람객 열기로 가득 메웠다.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축제가 재개될 예정으로 광주 곳곳에서 분산형 소규모 프린지를 개최해 광주 고유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준비한다.

체육 마니아라면 지난해 압도적인 성적으로 1년만에 K리그2 우승을 차지한 지역 프로스포츠 구단(광주FC)의 홈경기 관람을 추천한다. 광주 축구전용구장에서 7월 2일 광주-울산, 7월 15일 광주-대구 경기가 예정돼 있다. 8월 4일은 광주-대전, 8월 27일은 광주-수원 경기가 열린다. 관람석 예매는 광주F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 광주에서 주말 나들이하며 더위로 지친 마음을 힐링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길 추천한다"며 "시민의 행복한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해 흥미롭고 유쾌한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호 소 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귀하!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본인은 호남사학을 대표하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문수입니다.

본인은 지난 3년여 동안 나름대로 조선대학교의 정상화와 대학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과 상식을 깨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조선대가 운동권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없어 대통령님에게 대학을 정상화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상식이 학교법인 조선대 학교의 이사회를 정상화해서 대학과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5월25일에는 우려했던 대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설립자 측 이사 선임 몫마저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찬탈해버리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를 설립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이사들로 채우며 운동권이 판을 치는 이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회가 파행과 비정상적인 판을 치는 학교법인 사무처에서 사용하는 법인 카드 4장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 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상태로 이들은 법인의 비리를 감추는데 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조선대총장의 직인까지 도용해가며 임명을 강행하고 교육부에서는 김 이사장을 비롯한 동조자 4명의 불법행위에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 이사장은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수차례 기관경고, 주 의 , 시정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금하고 있는 임원의 학사개입 금지 조항을 어기고 여전히 대학에 대한 학사개입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의 교수평의원회와 교수노동조합, 동문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제3기 정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인은 그동안 김 이사장을 비롯한 운동권 비호를 받은 이사진들의 무수한 위법 행위를 바로 잡고자 2회에 걸쳐서 김 이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정보공개 등을 요청하며 왜곡된 이사회를 바로잡기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족 상태에서 조선대이사회의 불법행위를 저지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평생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법을 가장 잘알고 법을 누구보다도 더 지켜야 하는데도 사립학교법과 정관과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오히려 불법위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조롱하고 우롱하며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한 이들을 대통령님께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시급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관련 위법한 내 용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9

호소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3기 정이사 이 문 수